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혼합실습 교육 경험-현상학적 연구

이윤주, 양정하*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Experience in mixed practice educa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context of COVID-19 - Phenomenological Study

Yunju Lee, Jeongha Yang*
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J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대체하는 혼합실습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020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간호대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개별적으로 시행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고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혼합실습 경험을 통해 '불안 속 수용하기', '전면에 드러난 자율성', '마음을 줄인 비대면 실습', '지식 채워나가기', '목표달성이 가능한 다양한 접근', '아쉬움이 남은 최선의 실습'의 6가지 범주가 나타났다.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은 혼합실습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임상실습 대체를 받아들였으며,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실습 적응 방법을 모색하고 임상실습의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을 하였다.

주제어 : COVID-19,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혼합실습, 현상학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the essence of the mixed practice experience that replaces the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situation. From December 17, 2020 to December 31, 2020, eight nursing students were individually interviewed to collect data,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apply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ology. The study's finding derived 6 categories. The specific categories were 'Accepting in anxiety', 'Autonomy at the fore', 'Straining non-face-to-face practice', 'Fill your knowledge', 'A variety of approaches to achieve goals', 'The best practice left with regret'. In the pandemic situation, nursing students accepted clinical practice substitution with anxiety and concern about mixed practice, and experienced a way to adapt to practice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and to achieve the goal of clinical practice.

Key Words : COVID-19,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Mixed practice, Phenomenology

*Corresponding Author : Jeongha Yang(mint2243@hotmail.com)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전염병으로 세계적으로 확산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전역에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인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였다[1].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8월 25일 현재 누적 확진자수는 241,439명, 누적 사망자수는 2,237명으로, 일별 신규 확진자수를 고려하여 범국민적 방역관리를 하는 실정이다[2]. 코로나-19 상황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부의 권고안에 따라 대학은 개강을 연기하였고[3], 이론 강의를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4].

한편, 간호학은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현장에서 적용되는 실무 중심 학문으로, 졸업 시점의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만나는 대상자의 실제적 및 잠재적 간호 문제를 다루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5]. 이에 간호교육평가원은 국내외 의료현장에서 기대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을 1,00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6]. 학생들은 장시간의 임상실습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고, 예비간호사로서의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화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간호학과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이론 교과뿐 아니라 임상실습 교과 운영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7].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간호 현장에서 환자를 대면하고 대상자의 요구에 상응하는 간호를 제공하는 실습이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한 사례발표와 피드백, 술기 동영상 프로그램 및 가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실습을 대체하고 있으며 대학마다 비대면 임상실습에 대한 여러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8-11]. 전례 없는 전염병의 대유행 상황 속에서 임상실습을 대신한 온라인 실습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12], 비판적 사고 역량[13], 문제해결능력[14], 실습만족도[15], 임상수행능력[13,16]에 영향을 확인하는 등의 양적 연구를 통해 온라인 실습이 임상실습을 대신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임을 제시하고 있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과 교내실습으로 대체한 그룹간 임상수행능력, 환자안전관리 지식, 수행자신감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여 교내실습 또한 임상실습을 대체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11]. Kim 등 [12]은 온라인

실습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수업이 학습성취도와 간호수행능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보고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임상실습을 계획할 때 혼합실습에 대한 고려가 유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을 살펴보면, 대학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하여 운영된 임상실습 대체 실습은 현장 실습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대체 실습에 관한 질적 연구를 살펴보면, 현장실습 없이 온라인 실습만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은 익숙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것을 익히는 긍정적인 경험과 환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피드백을 즉시 받지 못하는 부정적인 경험도 동시에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8]. 온라인 실습으로 대체한 성인간호학 실습을 이수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에 관한 내용 분석을 시행한 연구도 일부 진행된 상태이다[10,17]. 다만,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대체하는 경험이 온라인 실습으로 제한되었고, 성인간호학과 같은 일부 교과목의 이수 경험이라는 측면이 임상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전략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추후에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다고 해도 실습교과목을 현장 실습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을 혼합하여 운영한다면 실습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임상실습을 대체하여 교내 대면실습을 포함한 혼합실습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임상실습 교육 방안을 도출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더불어, 실제 간호 임상 환경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보장 등이 강조되면서 학생이 간호를 직접 수행할 기회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기에[18], 혼합실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실습 교육의 대안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3학년 실습 기간 동안 기존의 임상실습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장기화한 감염병 대유행 상황 속에서 4학년 동안에 불가피하게 운영된 혼합실습을 이수한 졸업학년이 겪은 경험을 파악하는 것은 임상실습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 졸업 학년을 대상으로 4학년 과정 동안 겪은 임상실습을 대체한 혼합실습 경험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추후 실습 운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혼합실습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혼합실습 교육 경험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그 체험이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하여 간호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혼합실습 교육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Colaizzi[19]가 제시하는 인간이 겪은 경험의 의미에 중점을 두어 본질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혼합실습은 임상실습을 대체하기 위해 교내실습과 온라인 실습을 병용하여 시행한 것을 말한다. 교내실습은 시뮬레이션 실습, 핵심실기 실습과 평가, 조별 학습과제 논의와 발표 및 집담회 등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실습은 술기 동영상 프로그램, 가상 시뮬레이션 실습, 실시간 화상회의를 활용한 사례 발표 및 피드백 운영을 포함한다.

2.2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혼합실습 교육을 경험한 J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 수의 결정은 자료가 포화(saturation)될 때까지 진행하였으며, 간호대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을 시행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참여 학생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에 심층 면담이 이루어졌다.

2.3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와 연관된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수년간 질적연구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 여러 차례 참석하였고, 년 1회 이상의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 경험을 다른 연구자들과 나누었으며, 학문적인 성장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였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간호학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참여자 모집에 관한 공고 글을 작성하여 신청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자료조사 하였다. 연구 자료는 참여자에 대한 관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참여 학생과의 심층적인 면담에서는 개방적인 질문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한 혼합실습 교육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셨습니까?'를 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화 및 녹취되며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연구가 종료된 후에 즉각적으로 폐기됨을 공지하였다. 참여자는 연구자에게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문서로 만들어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간호대학생이 연구 참여를 동의했다 하더라도 자료수집 동안 연구 참여에 대한 철회가 언제든지 가능함을 알리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구참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면 면담과 비대면 화상회의용 ZOOM을 사용한 비대면 면담 중 선택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면 면담의 경우 방역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참여자 개별로 심층 면담한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대화의 전 과정을 녹화 및 녹취하였고, 면담은 최소 50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심층 면담 중에는 현장 노트를 사용하여 참여자의 특징, 연구자의 생각, 비언어적 의사소통 등을 기록하였다.

면담은 개방적이고 비구조화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과정 동안 연구자의 선입견이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진술에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지양하였으며, 참여자의 말을 해석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상황에 맞는 질문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계획된 절차를 준수하였고, 참여자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청하였고, 면담 자료를 생생하게 담기 위하여 녹화 및 녹취 기록을 주의하여 관리하였다. 또한, 면담 직후 녹취한 자료를 필사하고 반복적으로 청취하여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 노트 등의 이차적인 자료 분석을 통하여 자료의 민감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녹취된 면담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필사하였고, 기록된 자료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추가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면담을 하였다.

면담이 끝난 뒤 참여자에게 소정의 답례를 하였고,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등의 용어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이름을 대신하였다.

2.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Colaizzi[19]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공통적인 진술 내용을 그룹화하고 추상화시킨 뒤에 의미 있는 진술을 확인하였다. 첫 단계로 면담한 내용을 모두 읽어 의미 있는 진술을 303개 도출하고, 두 번째로는 연구 참여자에게 비슷한 속성의 진술을 다시 진술하게 하며 필사된 다른 참여자의 자료에서 유사한 진술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는 진술, 재진술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의미를 구성하여 113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의미를 34개의 주제(Themes), 15개의 주제모음(Theme clusters) 및 6개의 범주(Categories)로 분류하였다. 다섯 번째는 주제모음을 통합적으로 서술하고, 여섯 번째 단계로 분석과정을 통해 파악된 내용이 참여자의 경험과 정확히 맞는지 참여자에게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본질적인 주제를 연구참여자에게 말한 후 읽게 하여 본인이 진술한 의미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 참여자의 경험과 본질적인 주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20]가 제안한 엄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일관성 및 적용성, 사실적 가치, 중립성의 검토를 통해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사실적 가치는 연구 결과가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일관성은 양적 연구에서 신뢰도와 유사하며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일관성이 있게 결과를 도출하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였을 경우 그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을 보증하기 위해 Colaizzi[19]가 제안한 6단계의 분석 절차를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적용성은 연구 이외의 상황이나 다른 장소에서도 연구 결과를 반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노력으로, 본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참여자와 선정기준이 동일한 간호대학생 3명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였을 때 그 내용에 공감하였다는 피드백을 받아 적용성을 보증하였다.

사실적 가치는 연구결과가 믿을만하다는 확신을 주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혼합실습 교육 경험에 대해 선입관을 배제하고 질문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본인의 진술이 분석된 연구 결과와 명확하게 일치하는가를 재확인하여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담보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다양한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분석과정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높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참여자에게 분석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참여자가 진술한 혼합실습 교육 경험과 일치한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중립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생성 가능한 다양한 편견에서 자유로운 것을 말하며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한다. 연구자가 지닌 선입관을 기술하고 자료 수집과 분석과정 동안에 성찰하였으며 참여자들이 말한 내용만 중심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 연령은 23~25세 2명, 26~28세 5명 및 30세 1명이었으며, 성별은 남성이 3명, 여성이 3명이었다. 참여자들은 주로 인터넷 뉴스, TV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혼합실습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 4명은 보통이다, 4명은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혼합실습 교육 경험은 Table 1과 같이 34개의 주제, 15개의 주제모음과 6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3.2 범주 1. 불안 속에서 수용하기

3.2.1 임상실습 대체를 걱정함

이 주제모음은 ‘임상실습을 할 수 없어 당황스러움’, ‘임상실습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짐’, ‘새로운 방식의 실습에 걱정을 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각했던 임상실습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졌다.

“막상 이제 상황이 닥쳐서 못 간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실습이란 과목 자체가 실습에 의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온라인과 교내실습으로 한다하니 그게 교내실습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과목인가 의구심 같은 게 많았던 거 같아요.”(참여자 6)

“처음 비대면 수업은 했지만, 비대면 실습은 처음이라서 언제 학교를 가야 되고, 실습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 모르니 두려움이 조금 있었던 거 같아요.”(참여자 7)

Table 1. Pandemic Experience of Infectious Diseases of Nursing Students

Theme	Theme clusters	Category
Embarrassed because I can't do clinical practice	Worried about replacing clinical practice	Accepting in Anxiety
Doubt it could replace clinical practice		
Worried about new ways of practicing		
feel easy because there is less risk of infection	Prioritize safety due to infection concerns	
Worried about infection during in-school practice		
Acceptance of online clinical practice	Accepting clinical practice substitutions	
Looking forward to upgraded online clinical practice		
Freedom is possible and the mind is at ease	Freedom reduces burden	Autonomy at the fore
Reduce the burden of presentations in an online clinical practice		
Allows time for self-directed learning	Improved self-management ability	
Finding their own way to adapt to online clinical practice		
Online practice is less focused	Being tied up in an online framework and lethargic	
Lethargic with online practice		
Inconvenient due to an online program system error	Experience the pros and cons of online practice	straining non-face-to-face practice
Focus through real-time video conference		
Experience a variety of learning in online practice		
Difficulty in identifying unexperienced patient cases		
I do not know the field contents		
Busy with assignments instead of practice	Stressed by periodic inspections	
Quite nervous about the teacher's evaluation		
Understanding practice through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Understanding the nursing practice field through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ill your knowledge
Understanding the practical field through the guidance of the instructor		
Increase your knowledge level through online practice	A variety of learning expands thinking	
Increased critical thinking about cases.		
Find vitality through in-school practice	Fill in the gaps with in-school practice	A variety of approaches to achieve goals
Experience direct nursing through in-school practice		
Coping with situations through online simulation programs	Experience coping with situations through online practice programs	
Integrate technical tasks through online skill programs		
Learning outcomes can be achieved	Satisfied with well-organized practice	The best practice left with regret
Proud of doing the task		
Satisfied with the completion of the online practice		
Sorry for not being able to experience the field	Worried about lack of field experience	
Realize the importance of live field information		
Worried about not being able to handle the situation well		

3.2.2 감염우려로 안전을 우선시함

이 주제모음은 '감염 우려가 적어 마음이 편함', '교내 실습 시 감염에 대한 걱정을 함'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임상실습을 하는 것 이전에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희망하였다.

"저는 당연히 온라인 실습으로 안전하게 진행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4학년은 중요한 일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갇혀서 앞으로 있을 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으

니까..."(참여자 2)

"아무래도 학교에 나간다는 거 자체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라 좀 불안했던 거 같아요. 수업할 때는 괜찮았는데.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생기니까."(참여자 8)

3.2.3 임상실습 대체를 받아들임

이 주제모음은 '온라인 임상실습에 대해 담담히 받아들이기'와 '업그레이드된 온라인 임상실습을 기대함'으로 구성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참여자들의 의지와 별개로 임상실습의 방향은 정해질 수밖에 없음을 인지한

가운데 좀 더 나은 임상실습을 기대하는 모습이였다.

“어쩔 수 없이 안전이 중요하고 병원에서도 거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그런 거라서. 제가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굉장히 수용하면서 어쩔 수 없음을 좀 덤덤했어요.”(참여자 6)

“1학기 때는 처음이라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2학기 때는 익숙함이 더 컸었던 거 같아요..”(참여자 7)

3.3 범주 2. 전면에 드러난 자율성

3.3.1 자유로워 부담이 감소함

이 주제모음은 ‘자유로움이 가능하여 마음이 편함’, ‘온라인 실습 환경에서 발표 부담이 감소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실습 과정에서 상당한 편안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솔직히 실습을 나가게 되면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거나 눈치를 봐야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니 심적으로 편안함이 있었던 거 같아요.”(참여자 4)

“케이스 발표하면은 자기 얼굴 가리고 화면만 올리면 되잖아요. 좀 더 발표하기에도 표정 관리 안 해도 되고 진짜 편하게 했던 거 같아요.”(참여자 2)

3.3.2 자기관리능력이 향상됨

이 주제모음은 ‘시간적인 여유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함’, ‘온라인 임상실습에 스스로의 적응방법을 찾음’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임상실습에서 해야 하는 실습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해 점차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며 실습목표에 맞추어 나가는 모습이였다.

“온라인 실습 시, 내가 더 찾아볼 수 있고 시간을 더 투자해서 이거를 더 정확히 알아볼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장점이 좀 컸던 거 같아요.”(참여자 3)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실감이 컸지만. 체념하고 좀 더 적응을 빨리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나름으로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참여자 6)

3.3.3 온라인 틀 속에 묶여 무기력해짐

이 주제모음은 ‘온라인 실습은 집중도가 떨어짐’, ‘온라인 실습으로 무기력해짐’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새롭게 진행되는 온라인 실습에 대해 초반에는 걱정하며 계획된 실습스케줄에 집중하였으나 혼자 자유로운 공간에서 실습하며 적응을 하고 나서는 점차 긴장도 줄면서 단순한 과제 하듯 실습하였다고 하였다.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수업 듣는 느낌. 온라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거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지만, 대면

이랑은 그런 집중력 차이가 달라서..”(참여자 3)

“제일 큰 게 무기력함이 아무래도. 혼자 이렇게... 집에 이렇게 가두 놓고 약간 거의 푸아그라를 위한 거위가 된 느낌이었잖아.”(참여자 1)

3.4 범주 3. 마음을 즐긴 비대면 실습

3.4.1 온라인 실습의 장단점을 경험함

이 주제모음은 ‘온라인 실습에서 다양한 학습을 경험함’, ‘실시간 화상 공간을 통해 집중함’, ‘온라인프로그램 시스템 오류로 불편함’의 3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임상실습을 대체하는 온라인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브이심이랑 널싱스킬 같이 하면서 제가 좀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났던 거 같고.”(참여자 4)

“온라인 집담회에서 화면에 직접 자기가 했던 케이스를 띄워놓고 보니까 더 집중하며 케이스를 볼 수 있었고 학생들이 발표를 더 많이 했던 거 같아요.”(참여자 2)

“컴퓨터 오류가 나면 소리가 끊기거나 갑자기 화면이 멈춰서 튕겨지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참여자 3)

3.4.2 현장을 경험하지 못해 어려움

이 주제모음은 ‘경험하지 못한 환자 사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현장 내용을 잘 몰라 막막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이론으로 배우던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힘들음을 호소하였다.

“환자를 보면 눈으로 봤을 때나 반응 보면서 뭔가 하는데. 텍스트로 뭘 해야 하는지 상황을 판단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1)

“사실 질환을 이론만 보고, 병원에서는 이 질환이 있으면 이런 수술을 하면 어떻게 처치를 하고 하는지, 또 환자 상태는 어떻게 나아지는지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다 상상하거나 찾아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어요.”(참여자 5)

3.4.3 주기적인 점검으로 긴장함

이 주제모음은 ‘실습을 대신에 한 과제로 인해 바쁨’, ‘교수자의 평가로 상당히 긴장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비대면 실습으로 임상실습을 대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압박한 과제를 수행하고 잦은 교수자의 평가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성인 실습할 때는 지침서를 자주 검사하니 그 전보다 훨씬 더 안 밀리고 써야 하는 것도...관리실습은

매일 좀이 있고 과제가 있는 거라 그런 거 좀 힘들었던 거 같아요. 집에 있는데도 많이 바쁘고.”(참여자 8)

“화상회의를 자주 하는 게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솔직히 집에 혼자 있다 보면 저를 관찰하지 않으니까 쉬고 싶을 때 한 두 번 쉬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중략) 좀 더 제가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그 부분이 있어서 좋았던 거 같아요.”(참여자 4)

3.5 범주 4. 지식 채워나가기

3.5.1 교수학습방법으로 간호실무현장을 이해함

이 주제모음은 ‘교수자의 지도를 통해 실무현장을 이해함’,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통해 실습을 이해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실습교과목별 특성을 반영한 교수자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현장을 현장에서의 간호업무를 이해하고 있었다.

“환자에 대한 사전 파악이 필요한 검사 결과, lab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봐주셨고, (중략) 임상에서만 알 수 있는 이런 정보들, manitol 같은 경우는 주입 속도를 full-drop해야 된다는 거는 임상에서도 저희가 알고 보지 않으면 모를 것들이잖아요.”(참여자 7)

“처음에는 지역사회 간호가 뭘 공부하는 과목인지 잘 모르겠다 했는데 이번에 주변 시찰을 나가서 직접적으로 환경이나 지역 주민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자원 활용 부분들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도움이 되었어요.”(참여자 6)

3.5.2 다양한 학습으로 사고가 확장됨

이 주제모음은 ‘온라인 실습을 통해 지식수준이 높아짐’, ‘사례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높아짐’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온라인프로그램의 학습내용과 다양한 모의 사례에 대한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접근하는 고민의 시간을 통해 사고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였다.

“핵심 술기에 있어 널싱 스킬(프로그램) 통해서도 술기 평가에 임했기 때문에 좀 더 지식을 쌓는 데 부족함이 없었던 거 같고.”(참여자 2)

“(사례)케이스 정보가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하는 시간도 되게 충분하고,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할 시간도 많아서 되게 도움 되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5)

3.6 범주 5. 목표달성이 가능한 다양한 접근

3.6.1 교내실습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움

이 주제모음은 ‘교내실습으로 활력을 찾음’, ‘교내실습으로 직접 간호를 경험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비대면실습으로 혼자만의 공간에서 실습하다가 교내실습을 통해 술기를 직접 해보고 함께 하는 실습을 경험하

면서 대면실습의 중요성을 실감하였다.

“사실 집에 있다 보면 말을 꺼낼 일이 없었는데. 학교 나와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고 대화하니까 확실히 활력이 더 생겨난 거 같아요.”(참여자 2)

“컴퓨터로 보기만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학교에 나와서 물품 하나라도 더 만져보고 마네킹한테 한 번이라도 더 해보고 그러는 게 그래도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8)

3.6.2 온라인 실습프로그램을 통해 상황대처를 경험함

이 주제모음은 ‘온라인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상황에 대처해 봄’과 ‘온라인 술기프로그램을 통해 술기 업무를 통합적으로 정리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현장으로 나가지 못한 실습 상황에서 간호술기 및 상황대처의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프로그램을 통해 그 중요성을 더 실감하고 있었다.

“브이심은 내가 직접 온라인에서 대상자에게 대처를 실제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거 같아요.”(참여자 2)

“사실 임상실습에선 선생님 한 명만 따라다닐 수 없고, 심부름도 하다 보니. 업무가 어떻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언택트(너싱스킬프로그램)로 할 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업무가 이어지고 술기가 뭐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참여자 5)

3.7 범주 6. 아쉬움이 남은 최선의 실습

3.7.1 잘 짜여진 실습에 만족함

이 주제모음은 ‘학습성과 달성이 가능함’, ‘과제를 수행하면서 뿌듯함’, ‘온라인 실습을 마친 그 자체로 만족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처음 우려와 달리 실습교과목별 구성된 비대면/대면 실습내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성고를 달성해 내며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케이스 작성하면서 대상자를 정하고 그 환자를 사정부터 중재는 못하더라도 계획까지 대상자 상황에 맞게 사례 보고서를 작성해보고 핵심 술기도 그래도 유사하게 진행되다 보니 원하는 목표는 비슷하게 얻은 거 같아요.”(참여자 2)

“맨 처음에는 다 백지였던 지침서 부분들을 하나하나 학습하고 찾아보면서 채워지는 뿌듯함이 되게 크더라고요.”(참여자 4)

“어쨌든 비대면으로 이게 잘 끝났고 그렇게 큰일이 없게 잘 마무리가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8)

3.7.2 현장경험이 부족해 걱정함

이 주제모음은 ‘현장을 경험할 수 없어 아쉬움’, ‘생생한 현장 정보의 중요성을 실감함’, ‘상황에 대해 대처를 못 할까 봐 걱정함’의 3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

들은 임상실습을 대체한 온라인 실습 및 교내 대면실습에 만족하지만, 현장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한 간호역량의 위축에 대해 우려하였다.

“EKG기계 같은 소리 읽는 방법도 배우고 해서 그런 게 진짜 뼈빠거리는 상황에서 진짜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서 중환자실에 실습을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 봐서 아쉬워요.” (참여자 8)

“실습을 못 나가서 직접 경험하지 못하니... 임상에서 일할 때 부서마다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현장 간호사님이 말해주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6)

“이론이랑 임상이랑 다르다던데 교내실습만 했으니까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감이 안 오니까...이제 코로나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예 모르니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래요.”(참여자 5)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대체한 혼합실습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의 혼합실습 교육 경험은 ‘불안 속 수용하기’, ‘전면에 드러난 자율성’, ‘마음을 줄인 비대면 실습’, ‘지식 채워나가기’, ‘목표 달성이 가능한 다양한 접근’, ‘아쉬움이 남는 최선의 실습’의 6개 범주를 포함하고 있었다.

첫 번째 범주인 ‘불안 속 수용하기’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대체 자체를 걱정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의 지속 가운데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며 대체로 진행되는 임상실습을 받아들이는 부분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간호대학생의 경험에 따르면, 임상실습은 실습에 대한 양가감정과 정체성의 혼돈을 경험하게 하지만 간호주체자로 바로 서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21]. 이에 내년에 간호사로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4학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의 임상실습을 못하고 온라인 및 교내에서의 실습으로 진행되는 실습 방식에 대해 걱정할 수 있었다고 본다. 또한, Lee와 Ahn[22]은 고학년 간호대학생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당혹감, 실습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양가감정을 경험하면서도 예비간호사로서의 현실을 직시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이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수업에 적응의 어려움을 느끼는 만큼 수업에 대해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적응 가능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23].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예방 행위에 있어 불안 정도나 위험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24]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사전 제공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병 팬데믹과 같은 재난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상실습 운영방법이 변경될 경우, 학과 및 교수는 학생들의 불안감을 인정하고 이를 낮추며 긍정적으로 수용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대화의 시간이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범주인 ‘전면에 드러난 자율성’은 온라인 실습을 진행되는 가운데 간호대학생들은 기존 방식보다는 스스로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다 보니 자유로움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방식을 찾아가며 적응해가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간호대학생들이 주어진 실습 시간 동안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해보려고는 하나, 혼자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집중도는 낮아지고 무기력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의 온라인 실습 경험 연구에서 제시된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여유 있고 편안하지만 성실하지 못한 경험[8]과 일치한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그들의 불안을 낮추어 임상수행능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25] 학습만족도를 높인다고 한다[26]. 기존 현장실습 기관의 임상실습에서는 개인의 자율적인 수행능력이 부각될 수 없었으나, 온라인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 스스로가 학습내용을 주어진 실습 시간에서 수행하여 달성해 내는 사상이 중요하였다. 코로나-19에서 온라인학습환경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파악한 연구[27]에 따르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개인의 특성인 그릿의 역량이 강조되었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그릿과 적절한 대인관계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상실습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온라인 실습을 시행함에 있어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포함한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주도성이 낮거나 어려움을 견디는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는 별도의 세심한 지도를 통해 학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범주로 ‘마음을 줄인 비대면실습’은 간호대학생이 새롭게 경험하는 온라인 실습에 적응해 나가지만 현장 실습을 대신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가운데 머리로 상상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막막함을 경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온라인 실습을 진행하며 환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기 어려워 답답하다고 한 연구[8]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기존 임상실습에 비해 다양하고 방대한 과제와 잦은 교수와의 지도시간은 간호대학생에게 온라인 실습 중에서도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였다. 이는 온라인 실습으로 교수자와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연구[17]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변경된 임상실습 교육은 효과적으로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학습 내용과 지도를 통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구성하고 있다[8,17,21]. 이를 실행하여 목표 달성을 해내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이 갖는 부담감이 상당한 만큼 학습 동기를 강화하여 부담감을 낮추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예로, 간호대학생을 위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며 대인관계 향상과 내적 성장뿐만 아니라 문제해결과 스트레스 감소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 만큼[28] 실습을 운영하기 전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하여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네 번째 범주인 '지식 채워나가기'는 간호대학생이 혼합실습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간호 실무현장을 이해하며 다양한 학습으로 사고가 확장되는 경험을 담고 있다.

간호대학생이 온라인 실습 시 직접적인 환자 대상의 간호를 수행할 수가 없어 이론교육을 받는 것으로 느꼈다고 한 연구[8]와 마찬가지로 간호대학생은 실제적인 간호실무 역량보다는 지식수준의 향상을 경험하였다. 임상실습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응급환자 간호에 대한 학습성취도와 만족도를 평가한 연구[12]에서는 간호과정 경험, 사례기반 실습이 가능하여 유익하였다고 하였다. 간호대학생이 기존 통합되지 못했던 지식을 스스로 찾아가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 지식 확장의 기쁨을 경험했다는 한 연구[10]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다섯 번째 범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한 다양한 접근'으로 간호대학생은 교내실습을 통해 온라인 실습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실제적인 간호술기를 수행해 봄으로 직접 간호를 실감하였다. 또한, 온라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나 술기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해 보는 경험을 통해 임상실습교과목별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며 만족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황 경험을 하고 간호술기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학습법을 체험한 경험 연구[17]와 일치한다.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간호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임상실습 간호교육의 효과를 파악한 연구[15]에서 온라인 간호교육 콘텐츠 활용은 간호수행능력과 실습만족도 향상에 효과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대체하는 혼합실습 교육을 경험하기 전 임상실습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졌으나[8] 적절한 교내실습 운영과 적절한 온라인프로그램을 통해 임상실습교과목별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성취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만큼[23]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진행된 혼합실습 교육 또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성장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범주는 '아쉬움이 남은 최선은 실습'으로 간호대학생은 짜임새 있게 구성된 혼합실습 교육을 통해 실습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하였지만, 간호사로 취업하여 간호 현장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간호실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한 걱정을 드러내었다. Bdair[29]는 간호 전문직의 핵심인 임상실습을 온라인 학습으로 필요한 술기를 적절하게 학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이 비대면실습에 대한 양가감정을 통해 현장에서 실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과 준비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예비간호사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연구[17]와 일치한다. 가상 시뮬레이션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험 연구[9]에서도 반복학습에 대한 만족감이나 간호수행의 임상 적용 자신감은 생겼지만, 맞춤형 간호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한계를 느꼈다며 현장에서 환자를 대하고 간호사들의 실무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어 이로 인해 아쉬움을 거론하였다. 온라인 실습으로 간호사로서 마음가짐이 더 단단해지고 성장한 자신에 대해서만 제시되고 부족한 현장경험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연구[10]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연구가 간호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취업을 앞둔 4학년이 갖는 예비간호사로서의 두려움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처럼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졸업

예정자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경우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풍부한 겸임교수를 활용한 지도시간 확대, 문제 상황별 간호사의 대처 방법에 대한 온라인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더욱 현장감 있는 혼합실습 교육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현장 임상실습 경험의 기회가 적은 시기에 배출된 신규간호사를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간호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사전 교육 기간의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온라인 실습프로그램과 교내에서의 실습으로 운영된 혼합실습 교육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의 임상실습과 온라인 실습을 병행한 방식의 혼합실습 교육을 체험한 간호대학생의 경험과 상이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 4학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혼합실습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경험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임상실습 교육 운영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혼합실습 교육에 대한 경험은 6개 범주인 '불안 속 수용하기', '전면에 드러난 자율성', '마음을 줄인 비대면 실습', '지식 채워나가기', '목표 달성이 가능한 다양한 접근', '아쉬움이 남은 최선의 실습'으로 파악되었다.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은 혼합실습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하고 임상실습 대체를 받아들였으며,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실습 적응 방법을 모색하고 임상실습의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 교내실습과 온라인 실습을 활용한 블렌디드 교수학습전략이 오리엔테이션의 강화,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 전략 등의 보완이 필요하지만, 임상실습 교과목의 프로그램 학습성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실습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전략 개발에 자료를 제공하고,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의 임상실습과 온라인 실습을 병행한 방식의 혼합실습 교육을 체험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다양한 형태의 혼합실습 경험에 대한 비교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교내 임상실습과 온라인 실습 방식을 통해 경험한 다

양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온라인 프로그램들은 해외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국내의 간호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도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상황을 대비한 국내의 현장간호실무를 반영한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향후 혼합실습이 운영될 경우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M. Y. Kim et al. (2020). Weekly report on the COVID-19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s of March 28, 2020). *Public Health Weekly Report*, 13(14), 800-806.
- [2]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ugust 25, 2020). *Current status of COVID-19 outbreak and vaccination in Korea(8.25.)*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16656&cg_code=&act=view&nPage=1#
- [3] Ministry of Education (2020. March, 17). *All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high and special schools nationwide will be delayed for 2 weeks.*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opType=N&boardSeq=80044>
- [4] S. H. Kim & S. M. Cheon. (2020). A Case study of online class operation and instructor's difficulties in physical education as a liberal arts in university.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81, 9-26.
- [5]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July 19, 2021). *Certification criteria for nursing education.* <http://www.kabone.or.kr/notice/list/view.do?num=775>
- [6] J. Song. & M. Kim (2013) Study on Clinical Education for Nursing in Hospital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2), 251-264. DOI : 10.5977/jkasne.2013.19.2.251
- [7] Society for Simulation in Healthcare (March 31, 2020). *COVID-19: SSH/INACSL position statement on use of virtual simulation during the pandemic.* <https://www.ssih.org/COVID-19-Updates/>
- [8] Y. S. Kim & K. S. Lee. (2021). Onlin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y*

-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7), 160-171.
DOI : 10.5762/KAIS.2021.22.7.160
- [9] S. Y. Park., Y. Hur, C. Cha & Y. Kang. (2021). Experienc of Nursing Practicum Using Virtual Simulation among Nursi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9(1), 1-14.
DOI : 10.17333/JKSSN.2021.9.1.1
- [10] S. Y. You & M. Y. Cho. (2021).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Online Adult Nursing Practicum In COVID-19.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0), 385-398.
DOI : 10.22251/jlcci.2021.21.10.385
- [11] J. R. Lim & H. S. Song. (2021) A Comparision of the Clinical Competence, Knowledge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and Confidence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according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6(7), 65-73.
DOI : 10.9708/jksci.2021.26.07.065
- [12] W. G. Kim, J. M. Park & C. E. Song. (2021).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Online Practicum Program on Emergency Nursing Car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5(1), 131-141.
DOI : 10.21184/jkeia.2021.1.15.131
- [13] S. Lim & Y. R. Yeom (2020). The effect of Education Integrating Virtual Reality Simulation Training and Outside School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0), 100-108.
DOI : 10.22156/CS4SMB.2020.10.10.100
- [14] Y. K. Ha & Y. H. Lee. (2021). In COVID-19, Factors Affecting the Problem-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Participating in Alternative Clinical Practicu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2), 989-1006.
DOI : 10.22251/jlcci.2021.21.2.989
- [15] Y. H. Seo & M. R. Eom (2017). The Effects of Clinical Nursing Practicum Education using On-line Nursing Education Contents: Focused on Clinical Nursing Practicum of Special Uni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5), 539-556.
DOI : 10.22251/jlcci.2017.17.15.539
- [16] Y. S. Yoon., B. S. Park., S. J. Park & H. N. Cho. (2021). Factors Affecting Clinical Performance in Nursing Sudents-Focusing on Online Clinical Practice students during the COVID-19 Era.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5(1), 1-10.
DOI : 10.34089/jknr.2021.5.2.1
- [17] S. H. Lim. (2021). Content analysis on online noe-face-to-face adult nursing practice experienced by graduating nursing students in the ontact era.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4), 195-205.
DOI : 10.5762/KAIS.2021.22.4.195
- [18] K. C. Lim (2011). Directions of Simulation-Based Learning in Nursing Practice Education:A Systemic Review.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2), 246-256.
- [19] P. F. Colaizzi.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ile, R. & King, M. (2nd ed.).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pp. 48-71).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20] Y. S. Lincoln & E. G.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pp. 310-334).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21] K. H. Yang et al. (2017). Meaning of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in Nursing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1(1), 59-74.
- [22] G. C. Lee & J. Ahn. (2020). Colleg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2), 142-152.
DOI : 10.5762/KAIS.2020.21.12.142
- [23] S. M. Hong & S. H. Kim. (2020). An integrative review of learning experiences for nursing students in Korea: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2), 111-122.
DOI : 10.5977/jkasne.2020.26.2.111
- [24] J. H. Park, J. H. Kim, H. J. Lee & P. Kang. (2021). The Relationship of Anxiety, Risk Perception, Literacy, and Compliance of Preventive Behaviors during COVID-19 Pandemic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8(1), 48-59.
DOI : 10.12925/jkocs.2021.38.1.48
- [25] D. I. Jeong, E. Y. J. S. Kim & Y. S. Lee. (2021). The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Anxie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 531-542.
DOI : 10.22251/jlcci.2021.21.11.531
- [26] J. H. Ahn, J. H. Son & S. Y. Kim. (2021). Predictors of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after COVID-19 Pandem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7), 451-461.

DOI : 10.14400/JDC.2021.19.7.451

- [27] S. Y. Lee & J. Y. Kim. (2021). Growth Mindset, Gri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Online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8(2), 567-578. DOI : 10.12925/jkocs.2021.38.2.567
- [28] O. S. Lee & G. M. Ock. (2014). Development an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xed Methods Research. *J Korean Acad Nurs*, 44(6), 682-696. DOI : 10.4040/jkan.2014.44.6.682
- [29] I. A. Bdair. (2021). Nursing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perspectives about online learning during COVID-19 pandemic: A qualitative study. *Teaching and Learning in Nursing*.

이 윤 주(Yun Ju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8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의료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4년 2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직장 내 괴롭힘, 대인관계, 자살
- E-Mail : daminzimin@naver.com

양 정 하(Jeongha Yang)

[정회원]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교수학습, 회복탄력성
- E-Mail : jhyang@jeiu.ac.kr